

동교동발 정계개편 시동 거나

■ DJ 도쿄 생환 축하연 그 이후

배기선·배기운 의원 등 “우리 한뿌리” 공감대 정치권 “헤쳐모여식” 정계개편 땐 파괴력 커

정치권의 ‘추억’ 속으로 사라졌던 동교동계가 정계개편론과 맞물려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한화갑, 배기선, 염동연 의원 등 여·야 동교동계 출신 인사들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도교 피랍 생환’ 기념 행사에 대거 참석한 일을 계기로 향후 정계개편 과정에서의 역할론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정치권에서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에 골고루 포진한 동교동계 인사들이 양당을 오가며 ‘범여권 통합론’의 불씨를 살려내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는 차기 대선의 키를 잡고 있는 호남 표심의 결집을 위해서는 동교동계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논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특히 양당의 동교동계 인사들도 정계개편 역할론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정계개편이 열린우리당 중심이 아닌 헤쳐모여 형식으로 진행된다면 동교동계가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치적 뿌리가 같은 동교동계 인사들은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파괴력이 상당하

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열린우리당 배기선 의원은 14일 모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민주당은 50년 전통을 가진 정치세력이고 열린우리당도 민주당과 정치적 뿌리를 함께한다”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밝힌 데 이어 “(동교동계 인사들도) 민주·평화세력의 힘을 모아야 하는데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민주당 배기운 사무총장도 “동교동계가 민주·개혁세력의 통합에 나서야 한다는 것은 이십년 전으로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과거의 동지들과 언제든 격의없이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동교동계 일부 인사들은 김대중 대통령이 행사장에서 “내가 사랑하는 동지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한 것에 대해 정치적인 의미까지 부여하고 있다.

즉 김대중 대통령이 ‘동지’라는 야당 시절의 단어까지 사용하며 동교동계 인사들에 나름대로 역할을 할 것을 주문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동교동계의 ‘부정적’ 이미지도 상당한



12일 동교동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도쿄 피랍 생환 33주년 기념행사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동교동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기념 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상황이어서 향후 정계개편 과정에서 중심축으로 부상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동교동계는 나름대로 민주 정통세력이라는 평가도 받지만 이와 함께 구태 정치, 호남중심이라는 한계가 있다”며 “동교동계의 부상은 오히려 범민주 개

혁세력 연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계에서는 동교동계가 향후 정계개편 과정에서 드러내 놓고 움직이기보다는 수면 아래서 정중동의 움직임을 나타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하한 정국 달구는 유진룡 문광차관 경질 논란

野 “국정조사하자” VS “실현 불가능” 與

한나라 “배짜라 정권...盧대통령이 의혹 직접 밝혀야”

黨·靑 “업무차원 협의 불가...정치공세 중단을” 반박

유진룡 전 문화관광부 차관 경질 논란이 하한 정국을 더욱 뜨겁게 달구고 있다.

특히 유 전 차관의 경질 논란은 전 효숙 신임 헌법 재판소장 내정 문제로까지 확산될 기미마저 보이고 있어 정치권에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14일 오전 유진룡에 대한 청문회 추진 방침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청와대 인사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의사를 공식화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14일 오전 유진룡 전 차관 경질 의혹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들끓고 있다”면서 “이번 9월 정기국회 국정감사는 물론 필요한 경우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등의 방법으로 노무현 정부의 인사시스템 문제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유 전 차관 경질 문제와 관련 ‘전도를 밝혀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열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논란의 전모를 밝히고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조속히 국회 문광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청와대의 인사권 행사 전반에 대한 진상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에 맞서 열린우리당은 “유진룡 차관 인사에 대한 한나라당의 국정조사 요구는 과도한 정치적 공세”라며 “국정조사를 벌일 사안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상호 대변인은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정무직인 차관급 인사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는 ‘왜 이 사람을 교체했나’에 대한 정무적 판단을 따져보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도 한나라당의 국정조사 요구는 ‘무분별한 정치공세’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야당은 무분별한 정치공세보다 민생개혁안 처리에 우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백만 홍보수석과 K씨와는 특별한 개인적 연고가 없고 적임자이기 때문에 업무차원에서 인사협의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이백만 靑 홍보수석

추천 인사는 고향 후배

진도 출신의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이 유진룡 전 문화관광부 차관에 대해 ‘인사협의’ 차원에서 아리랑 TV 부사장으로 추천한 고향 후배는 광주 출신의 K씨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광주 D고와 서울 S대를 졸업한 K씨는 대학시절 강제징집을 당하고 민주운동 과정에서 투옥된 적이 있는 운동권 출신으로 지난 92년 민주당 이모 의원의 비서관을 시작으로 정계에 입문, 서울시의원을 지낸 뒤 지난 2002년 지방선거와 2004년 총선에서 낙마하고 국무총리실에서 비서관으로 재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킨십’ 통해 당·청 갈등 봉합

■盧대통령 잇단 ‘만찬 정치’ 관심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당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비공식적인 접촉을 부쩍 강화하는 듯 하다.

시기적으로 지난 6일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기용 여부를 둘러싼 당·청 갈등 수습을 위한 청와대 회동 이후 잦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노 대통령은 당·청 회동 당일 저녁 열린우리당 염동연 전 사무총장을 청와대로 초청, 만찬회동을 했다.

이 자리에는 권양숙 여사도 동석했고, 염 의원에 부인과 동반해서 참석했다는 후문이다. 이어 지난 주말(12일)에는 김원기 전 국회의장, 김덕규 전 국회부

의장, 이해찬 전 총리, 유재천 의원 등 당 중진급 의원들과 만찬을 함께 했다.

당초 지난 13일 이광재·서갑원·이화형·백원우 의원 등 386 출신 의원들과의 만찬도 계획했지만 잠정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통령의 당 소속 의원들과의 비공식 만찬 일정은 당측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있지만, 청와대 측도 이 같은 일정 확인 요청에 대해 굳이 부인하지는 않고 있다.

한명숙 총리,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과 김한길 원내대표, 청와대 이병완 비서실장이 참여하는 당·정·청 4인 회동의 본격적인 가동과 더불어 노 대통령의 ‘만찬 정

치’가 활발해짐으로써 당·청간 원활한 의사소통과 국정현안 조율을 위한 여러내 소통 채널이 다양화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대통령과 당 소속 의원들과의 만남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 아니냐”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비공식 만찬 참석 대상은 특정 정파나 연령대에 국한되지 않고 두루 망라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통령이 ‘만찬 정치’를 통해 당내 다양한 스펙트럼을 직접 파악하는 것은 물론 인기 후배 국정 운영에 대한 당의 협조를 당부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분석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 16~29일 당무 종합감사

민주당이 오는 16일부터 29일까지 대대적인 당무종합감사를 실시한다.

민주당은 이번 당무감사를 3기 정권재창출을 위한 초석으로 삼는다는 목표로 배기운 사무총장의 지휘 아래 중앙당에 상환실을 설치하고 9인 1조, 총 10개 조를 편성, 16개 시·도당과 249개 지역위원회를 대상으로 전국동시감사에 나선다.

민주당 배기운 사무총장은 “당무종합감사의 신뢰도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당 위원장과 수도권 지역위원장을 조장으로 선임할 예정”이라며 “특히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당원들의 제언과 제보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靑 문화도시 등 지역 현안 공조

광주시-지역의원 18일 간담회

광주시는 오는 18일 오후 1시30분 광주시청 3층 회의실에서 지역 국회의원(열린우리당) 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간담회를 개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국비확보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지난 10일 한나라당과의 지역 정책간담회에 이어 11일 민주당과의 정책협의회를 시청에서 개최했다.

광주시는 이번 정책간담회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광주~완도간 고속국도 노선 연장, 호남고속철도 조기건설, 광주 R&D특구 지정 추진 등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한 지역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도시 외곽순환도로 건설, 광주국립종합과학관 건립 사업 등 민선 4기 역점시책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정책간담회를 통해 박광태 광주시장과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들 사이의 고소·고발사태가 해결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지붕·옥상슬라브 우레탄폼 방수전문!

지붕 방수도 되고 단열도 되는 최첨단 신소재

겨울철 보온, 난방비 절감! 지금 시공하십시오!!

- 비가 세서 걱정하십니까?
- 여름에 더워서 자증 납니까?
- 겨울에 춥습니까?
- 외관상 흉하십니까?
- 소음이 심하십니까?

한번 시공으로 건물 수명을 늘기 위한 영구적 방수 방비 50% 절감 효과

- 외장 기와지붕, 스테이트지붕, 합석지붕, 스타브 옥상, 아파트 옥상, 공장지붕, 농협창고 등
- 내장 : 천사, 천사, 계사, 냉동창고, 저온창고, 체육관 건물벽, 지붕용 실내 난방터미널 가능

※대리점 및 취급점 모집

(주)태양주택개발 | TEL (062) 262-0606 / 262-0450

노동부지정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현대직업전문학교

[최고 교수진, 일한 교육, 최상의 시설]

| 유료과목 | 교육내용 | 개강 |
|---------------|--------------------------|--|
|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실기 | 엑셀, 엑세스, 파워포인트 | 1차 8월 10일 : 오전/오후/야간 2차 8월 22일 : 오전/오후/야간 |
| 재직자과정 | 교육내용 | 개강 |
| 공인중개사 | 민법, 부동산학 개론 1차 중심반 | 7월22일 주말반 |
| 주택관리사 | 회계, 실무, 법규 | 8월 5일 주말반 |
| 정보화기초-1 | 윈도우, 인터넷, 문서편집활용 | 8월개강 |
| 정보화기초-2 | 엑셀, 파워포인트, 컴퓨터활용 | 8월개강 |
| 사무자동화 | 문서편집활용, 엑셀, 파워포인트, 컴퓨터활용 | 상당후결정 |

■ 기타사항

- 고용보험가입 직장인, 각 과정별 25명 (선착순 정원에 모집)
- 수료 후 100~80% 환급
- 수강절차
- 훈련 상담 ▶ 훈련수강신청서작성 ▶ 훈련기관에 제출 ▶ 수강

■ 문의처

- 도청외선번호 : 1, 2, 5, 8, 9, 15, 19, 20, 22, 34, 55, 111, 117, 222, 555, 385, 777
- 현내외선 : 3, 11, 27, 38, 55, 111, 118
- 이메일 : gae@hmc.edu.kr

현대직업전문학교

위치 : 전남여고건너편 (김재규경찰학원 내)

☎ 224-4560, 236-2467

공무원 전문강좌

수시접수증

- 첫진도 시작반(이론반) 8월 1일 (광주유일 B반) 개강
- 문제풀이 8월 1일(서울직 선관위 대비) 매월
- 경찰직 이벤트 무료교재(138000), 10월 1일 시험대비 문제풀이 무료

1일

무등고시학원 동부경찰서 222-4560

꼭내영고시학원

“교원임용 강좌에도 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문제풀이반 개강 9월 2일 (현재 예약접수중)

- 교육학/과내영 선생
- 수학/임대성 교수
- 생물/김지옥 교수
- 체육내용학/김용호 교수
- 유아교육과정/임미선 선생
- 국어/최병해 교수
- 과학교육론/장영민 교수
- 지구과학/박명순 교수
- 체육교육론/조남용 교수
- 초등교육과정/위재권 선생
- 국어교육론/미운용 교수
- 물리/장영민 교수
- 사회교육론/김형수 교수
- 미술/김성희 교수
- 영어/송옥 교수
- 화학/이영철 교수
- 일반사회/김영수 교수
- 음악/박성선 교수

전국 최강의 강사진만을 모았습니다.

수강문의 : 062-529-0090 전남대 정문앞(신안사거리) http://www.naeyoung.com

에듀뷰넷

http://www.eduview.net

생강한 한예종의 위대한 시작! 원하는 장소에서 언제든지 수강가능!

전국최고의 유명강사진 총집결

| 교육학 유아교육 | 미술 |
|------------|------|
| 박내영 임미선 | 김성희 |
| 국어 영어 | 수학 |
| 최병해 송옥 | 임대성 |
| 체육 공과과학 | 일반사회 |
| 김용호 박영민 | 김형수 |
| 현재 심화리 강인중 | |

문의 : (02)816-1646

hanbitgosi.co.kr

‘10월 1일 서울시’ ‘9월 23일 9급사무직’ ‘9월24일 선관위’ 시험대비

7급 문제풀이반/이론반 9월 1일 개강

한빛공무원학원

복구청 건너편 전남대 후문앞 ☎ 234-0234